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만기 또 6개월 연장

정부, 133조8000억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광주·전남 자영업자,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 지난해 잔액 5857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줄도산 '뇌관'으로 여겨졌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6개월 연장된다.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경영·재무 미시 분석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담겼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2020년 4월 1차 연장 이후 2차(2021년 3월), 2차(2021년 9월), 4차(올 3월)에 걸친 조치다.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 전용기금·소상공인 전용기금대출

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이 이뤄진다.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처음 대출 만기를 연장한 2020년 4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금융권은 총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400억원이다.

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000억원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가 속출하면서 생계형 자금 수요는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추세다.

광주·전남 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평균적으로 대출한 금액은 지난해 처음 4000만원을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개인사업자들의 국내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액(잔액)은 42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484만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29.9%(98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4년 동안 개인사업자 건강 저축은행 대출액은 3609만원(2018년)→3305만원(2019년)→

3810만원(2020년)→4294만원(2021년)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평균 대출액은 광주 4564만원·전남 4035만원으로, 전년도 각각 13.5%(543만원)·10.6%(387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개인사업자들의 저축은행 대출 총액은 지난해 58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5%(831억원) 늘었다.

대출 총액은 지난 2018년 4148억원에서 이듬해 4026억원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년 5026억원, 지난해 5857억원 등으로 뛰었다.

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저축은행 대출 건수도 1만 1493건(2018년)→1만2180건(2019년)→1만 3191건(2020년)→1만3639건(2021년)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개인사업자 저축은행 대출 총액은 19조4850억원으로, 전년(13조4253억원)보다 45.1%(6조597억원)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대면으로 흥해라' 광주은행 예·적금 경품 행사

광주은행이 이달 말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흥해라' 행사 응모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비대면 방식으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이다.

6개월 이상 정액적립식 적금을 월 10만원(외화적금 미화 100달러) 이상 가입하거나 정기예금 100만원(외화예금 미화 1000달러) 이상 가입하면 된다.

수요일마다 선착순 총 3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배달상품권 5000원권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금융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 공장 3차 증설

내년 생산능력 9000t으로 확대

효성첨단소재(주)가 전주 탄소섬유 공장의 3차 증설에 나선다.

효성첨단소재는 3일 전북 전주공장에 469억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2021년에 이은 3차 증설이다.

효성첨단소재는 내년 4월까지 연산 2500t을 증설해 총 9000t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증설은 수소차의 연료탱크와 압축천연가스(CNG) 고압용기, 태양광용 단열재 등 친환경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저장

장, 운반에 쓰이는 고압용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등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중탄성 탄소섬유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고 강도는 10배 높아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스포츠레저, 건축용 보강재 등 철이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에서 대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연산 2만4000t까지 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10%의 '탄소섬유 분야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탄소섬유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2008년부터 전주시와 협업을 통해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1년 4년 여간의 연구 끝에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독일·미국에 이어 세계에서는 4번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2030년 글로벌 전기차 120만대 판매”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 14종 라인업 구축 친환경 비중 52%로

기아가 14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2030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12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내놓았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3일 온라인 채널을 통한 '2022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과 재무 목표,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

기아는 2030년 글로벌 시장에 올해 목표치 315만대 대비 27% 증가한 400만대를 판매하고, 400만대 중 친환경차 비중을 52%까지 끌어올려 선도적인 전동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는 2023년 플래그십 모델인 EV9을 비롯해 2027년까지 매년 2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 총 14종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까지 11개 전기차 차종을 내놓겠다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전용 전기 픽업트럭, 신형시장 전략형 전기 픽업트럭, 경제형 전기차 등 3종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120만대를 달성할 방침이다.

기술 중심의 상품성 강화 전략에도 더욱 힘을 쏟아 2025년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커넥티비티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성능을 최신·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에는 선진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고도화된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PBV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으로는 올해 기존 양산차를 기반으로 한 파생 PBV인 레이 1인승 밴,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 전용 모델인 니로 플러스를 출시하고, 2025년에는 스퀘어 플랫폼을 적용한 전용 PBV를 출시한

다는 복안이다.

올해 재무 목표는 매출액 83조1000억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 영업이익률 7.8%로 잡았다. 전년에 비해 매출액은 19.0%, 영업이익률은 27.3%,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각각 늘어난 목표치다.

중장기 재무실적에 대해서는 2026년 매출액 12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영업 이익률 8.3%를 달성하고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기아는 밝혔다.

송호성 사장은 "지난해 기아는 사명, 로고, 상품과 디자인, 고객접점, 기업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 글로벌 브랜드 조사에서 고객들의 평균 소득, 평균 연령 등 각종 지표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기업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사업 전환, 모든 접점에서의 고객 중심 경영, 기본 내실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국세청 '납세의 날' 성실납세자 표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세정에 협조해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

했다.

이날 부국철강(주)이 은탑산업훈장, 한국프라임제약(주)은 산업포장을 받았고, ㈜박덕, 유한회사 케이엔티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석정례(주)와 ㈜로맥스가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9명, 세무서장 표창 25명 등 총 80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



소상공인 600억 용자

광주신보, 광주시 등과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은 3일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용자지원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신보와 광주시,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부, 신용협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시의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용자지원을 제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규모는 총 600억원 안팎이다. 금리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신보가 긴급 사업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포용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골프 전문매장에서 봄맞이 골프의류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골프의 계절...이월 의류 할인전

롯데백 광주점 최대 60%

봄철을 맞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골프의류 이월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봄맞이 골프웨어 이월 특가상품전'은 9층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2020~2021년 봄·여름 상품을 30~6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엠유스포츠'와 '보그나'는 행사 상품을 40~50% 할인 판매하며 '블랙앤화이트'는 할인을 30~50%를 적용한다.

'와이드앵글'은 최대 60%까지 이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4일부터 6일까지 구매 금액대별로 롯데포인트를 1만5000점, 3만점, 5만점을 적립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스포츠 활동 수요가 골프로 몰리면서 관련 용품과 의류 등 매출도 크게 올랐다.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3.26 (+39.74)
↑ 코스닥	909.48 (+14.03)
↑ 금리(국고채 3년)	2.195 (+0.008)
↓ 환율(USD)	1204.60 (-1.50)